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에 근거하여 吳茱萸湯을
투여한 편두통 증례 및 하지불안증후군 증례 각 1례허주^{1*} · 이육제² · 정재원³경희부부 한의원^{1*}이육제 한의원²팔복 한의원³A Case Report of migraine and a case report of restless
legs syndrome treated with Osuyu-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Joo Heo^{1*} · Wook-jea Lee² · Jae-won Jeong³13, Mangwon-ro 7-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1*}225, Sinnæ-ro, Jungnang-gu, Seoul, Korea²699, Girin-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³

Objective : This study was intended to evaluate if treatment with Osuyu-Tang following the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DPIDS) worked analyzing the progress of patients with migraine and restless legs syndrome and to reinterpret the provision of 309 Soyinbing Osuyu-Tang based on the analysis of whether it worked.

Methods : Two cases treated with Soyinbing Osuyu-Tang were analyzed using DPIDS. The migraine and restless legs syndrome in both cases were evaluated using the migraine disability assessment (MIDAS) and the Korean versions of the international restless legs scale (K-IRLS), respectively.

Results : In the first case, during 45 days of treatment, the MIDAS decreased from 10 days to 3 days. In the second case, during 30 days of treatment, the K-IRLS decreased from 30 to 9. In both cases, Soyinbing was associated with the disease, although the activity was less; and Leng (冷) was associated with numbness in the kneeling position.

Conclusions : It was confirmed that treatment with Osuyu-Tang was effective against migraine and restless legs syndrome and that Leng could be associated with numbness in the kneeling position. The etymological analysis of the *Shanghanlun* characters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further clarifying the clinical significance and interpretation of *Shanghanlun*.

Key words : Soyinbing, Osuyu-Tang, Leng (冷), *Shanghanlun*,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DPIDS), Herbal medicine

서론

『傷寒論』은 『黃帝內經』과 더불어 한의학 최고의 임상서적으로 후대 한의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¹⁾. 특히 한약에 관한 가장 오래된 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한약들이 『傷寒論』 처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의가들이 『傷寒論』 연구에 매진했고, 그 의미를 해석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傷寒論』 조문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 위주가 되어왔고, 임상적 재현에 대한 연구는 과제로 남아 있다.

康平本 『傷寒論』이 발견되면서 『傷寒論』과 『黃帝內經』이 별도의 이론체계를 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²⁾. 따라서 이전에 『黃帝內經』의 이론체계로 『傷寒論』을 해석하려 했던 노력들은 그 학문적 타당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黃帝內經』의 이론체계에서 벗어나 『傷寒論』 자체의 의미를 임상에서 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傷寒論』의 서술 체계를 분석하여 임상 적용 방법을 제시한 연구³⁾에 따라 『傷寒論』 條文에 언급되는 증상은 환자에게 증상의 유무를 확인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傷寒論』의 條文을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활용할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傷寒論』에 등장하는 吳茱萸湯으로 치료한 두 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吳茱萸湯은 전통적으로 肝胃虛寒, 胃失和降, 肝不疎泄, 而致陰寒凝滯, 濁陰上逆의 병기에 활용되어 溫中補虛, 降逆散寒의 처방을 바탕으로 虛寒性 구토에 대응⁴⁾되는 처방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내 임상 연구로는 구토와 연관된 증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피부 질현 증례 3례⁵⁻⁷⁾, 두통 증례 1례⁸⁾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傷寒論』의 진단 체계와 환자의 어원 분석에 따른 『傷寒論』의 해석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少陰病 309번 條文으로 진단하고 吳茱萸湯으로 치료한 2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309번 條文의 少陰病, 吐利, 手足逆冷, 煩躁欲死에 새로운 해석을 적용해서 『傷寒論』의 조문이 환자의 증상인 동시에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기록된 것으로 판단하여 진단 및 투약의 활용기준으로서 더욱 진전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한의원과 ○○○한의원내 내원한 환자 중 少陰病으로 진단하여 吳茱萸湯을 투여해 치료한 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증례에 대한 연구는 환자의 진료기록

* Corresponding author : Joo Heo. 13, Mangwon-ro 7-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 jjddju@naver.com
· Received : 2019/12/10 · Revised : 2019/12/29 · Accepted : 2020/01/03

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며, 저자의 ‘연구윤리서약서’, 환자의 ‘연구자료 활용 동의서’ 등 서면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2) 연구방법

(1) 진단

『傷寒論』辨病診斷體系를 바탕으로 진단하였다.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고 주소증을 만들어낸 핵심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傷寒論』에서 적합한 辨病-提綱-條文에 순서대로 연결시켰다.

(2) 처치

吳茱萸湯을 『傷寒論比較⁹⁾』에 기재된 용량에 따라 1일 3회, 1회 120cc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Table 1. Composition and administration of Osuyu-tang⁹⁾

Herbal name	Daily dose(g)
Evodiae Fructus	3
Jujubae Fructus	13.5
Zingiberis Rhizoma Recens	18
Ginseng Radix	6

Dried herbs above are dose of one day. The herbs above were boiled with water, and residues were removed. The patient was administered 120cc each, five times a day.

3) 평가방법

증례 1의 경우 편두통의 평가에 널리 활용되는 설문지인 MIDAS(Migraine Disability Assessment)를 사용하여 주소증의 호전 정도를 평가하였으며, 증례2의 경우 하지불안증후군에 활용되는 평가 지표인 를 사용하였다. 활용한 평가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MIDAS(Migraine Disability Assessment)¹⁰⁾

MIDAS는 편두통 환자의 전반적인 장애 정도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치료에 따른 삶의 질 변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이다. 최근 3개월간의 삶의 질 평가를 위해 직장일, 주부일, 여가활동 등 세 가지 영역의 장애 정도를 평가한다. 본 증례의 경우 환자의 생활과 월경 주기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의 일부만을 활용하였으며, 환자의 편두통이 월경 주기와 연관이 있으므로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삶의 질 평가를 시행하였다.

(2) K-IRLS(the Korean Versions of the International Restless Legs Scale)¹¹⁾

K-IRLS는 한국판 국제하지불안척도이다. 주관적인 증상으로 표현되는 하지불안증후군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개발되었다. 10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문항들은 하지불안증후군 주요 증상의 평가, 증상의 정도와 빈도, 수면장애와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환자의 기분과 낮 동안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또한 개별 문항에 포함된다.

증례 1

1. 환자명 : ○ ○ ○

2. 환자 기본정보

여 / 43세 / 160cm / 45kg / 기혼 / 교사(휴직)

3. 주소증(C/C) : 월경이 끝날 때 즈음 두통과 함께 구토를 함

1) 구토 : 월경이 시작되고 나서 속이 점점 울렁거리다가, 월경이 끝날 때 즈음부터 구역감이 심해짐. 억지로 구토를 해야만 속이 일시적으로 편해지며, 4-5일 정도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구토를 함. 월경과 상관없이 속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주로 월경과 연관되어 증상이 나타남

2) 두통 : 머리가 욱신거리는 느낌. 월경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두통이 발생하다가, 월경이 끝날 때 즈음부터 어지럼증, 눈이 욱신거리는 느낌, 눈이 가물가물해지는 느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느낌과 함께 두통이 심해짐. 이때에는 구토를 해야만 속이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두통의 강도도 함께 줄어들

4. 발병일(O/S) : 약 3년 전

5. 현병력(P/I) :

1) 두통과 함께 구토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다가 며칠 후 사라지는 현상을 종종 경험함

2) 약 3년 전부터 월경이 시작될 때마다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매 달 나타남

3) 구토 증상에 대하여 병원에서 거식증으로 진단받음

6. 가족력 : 없음

7. 과거력 : 2003년 비염 수술

8. 현재 복용중인 약물 : 주소증과 관련하여 복용하는 약물 없음

9. 주요 임상증상

1) 食慾: 없음. 편식이 심함

2) 消化: 안 됨. 어려서부터 소화기가 약했음. 냄새에 굉장히 예민함. 김밥에 들어있는 단무지 상한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예민함. 월경이 끝나갈 때부터 구역감이 느껴지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억지로 구토를 함

3) 口部: 입이 마름. 하지만 수분 섭취를 잘 안 함

4) 汗出: 잘 안 남

5) 大便: 1회/일. 정상 변

6) 小便: 7회/일

7) 寒熱: 몸을 무조건 따뜻하게 해야 함. 발병시점 전후로 몸이 훨씬 차가워졌다고 느낌

8) 頭面: 월경이 시작되면 두통이 생기며, 월경이 끝나갈 때 두통이 가장 심해짐. 두통이 발생할 때 눈이 가물가물해지며 소리도 잘 안 들림

9) 呼吸: 비염이 있었으나 수술 후 괜찮아짐

10) 胸部: 별무

11) 腹部: 별무

12) 睡眠: 잠이 들기 까지 30분 정도 걸림
13) 身體: 가려움증이 환절기 또는 감기 걸릴 때 심해지는 느낌. 손발이 타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호소. 이 느낌은 무릎을 꿇을 때 피가 통하지 않아 저린 느낌의 양상과 유사함

14) 性慾: 별무

15) 婦人: 30일 주기. 약 7일 정도 월경을 함. 발병 시점 이전에 비해 월경양이 줄어든

것 같음. 건강이 안 좋으면 월경양이 줄어드는 편

16) 스트레스 대응 방식 : 휴직 후 독서, 시험 등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음

Table 1. The main diagnostic points of the first case

Interpretation of Etymology	Expression in the provision of <i>Shanghanlun</i>	Related Patient Information
Soyinbing	少陰病	Disease developed while the activity is less
Reflux esophagitis Soft stools or leukorrhea	吐利	Vomiting occurred during menstruation
Numbness of hands and feet	手足逆冷	hands and feet were burning
Whimper	煩躁欲死	She was very annoyed at the time of her illness

10. 진단 및 평가 방법

1) 辨病診斷 및 條文의 선정 (Table 1)

(1) 臨床 所見 : 상기 증상은 전형적인 편두통(Migraine)이며, 주소증은 편두통의 부수 증상임. 눈 가물거림과 청력 이상은 편두통의 조짐(aura)이며, 손발이 타는 듯한 느낌 또한 조짐에 속함. 월경 때 두통과 구역감이 발생하는 것은 편두통의 특징적인 양상임

(2) 辨病 診斷 : 少陰之爲病

① 脉微細 : 평소 기운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소화기가 약했음. 발병 시점 전후로 휴직을 하게 되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게 됨. 기운이 더욱 없어지고 이유식의 식습관을 가질 정도로 소화기가 더 예민해지면서 주소증이 심해짐

위 脉微細를 근거로 하여 少陰病을 진단 (Table 1.)하였다.

(3) 條文 診斷 : ㉔309. 少陰病, 吐利, 手

足逆冷, 煩躁欲死者, 吳茱萸湯主之.⁹⁾

① 吐利 : 발병 시점 전후로 냄새에 극도로 예민해짐. 월경과 같은 생식기 분비물이 나오는 조건에서 두통과 구토가 생김

② 手足逆冷 : 손과 발이 타는 것처럼 저린 느낌

③ 煩躁欲死 : 휴직을 한 후 짜증이 많아짐

위 진단내용을 근거로 하여 少陰病의 309번 吳茱萸湯 조문임을 진단하였다.

2) 치료 평가 도구 : MIDAS

11. 치료적 증제

1) 한약 투여

吳茱萸湯을 2019년 5월 16부터 6월29일까지 45일 진료기간 중 45일 분을 투약하였으며, 1일 3회, 1회 120cc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2) 생활지도

짜증을 조절하고 찡찡대지 말 것을 지시함

Table 3. Migraine Disability Assessment change during treatment

Section	1 st day	7 th day	37 th day	70 th days
1. Days in the last 1 month not doing household work because of headaches	3	2	0	0
2. Days in the last 1 month when productivity in household work reduced by half or more because of headaches (Days counted in question 1 were excluded)	4	3	2	2
3. Days in the last 1 month when missing family, social or leisure activities because of headaches	3	2	1	1
Score	10	7	3	3
A. Days in the last 1 month having a headache (If a headache lasted more than 1 day, count each day)	7	5	3	4
B. On a scale of 0-10, Average for how painful the headache is (Where 0 = no pain at all, and 10 = pain as bad as it can be)	8	6	3	4

12. 치료기간 및 경과

1) 기간: 2018년 5월16일-6월29일

2) 경과 (Table 3 참고)

(1) 초진일

① MIDAS : 10일

② 월경이 시작될 때 눈이 가물가물해지는 느낌, 소리가 안 들리는 느낌과 함께 육신거리는 느낌의 두통이 생기며, 월경이 진행될수록 강도가 심해짐

③ 월경 끝날 때 즈음 발생하는 구역감이 발생하여 억지로 구토를 해야만 증상이 일시적으로 안정됨

④ 손발의 끝이 탈 것 같은 느낌

(2) 7일 후 재진 (吳茱萸湯 복용 7일, 치료 시작 후 첫 월경)

① MIDAS : 7일

② 월경 시 편두통 증상이 복용 전에 비해 감소함

③ 월경 시 구역감 및 구토 증상이 발생하긴 하나, 복용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느낌

④ 약 복용 3일 후에 손발 저림 소실

(3) 37일 후 재진 (吳茱萸湯 복용 37일, 치료 시작 후 두 번째 월경)

① MIDAS : 3일

② 월경 시 편두통 증상이 계속 줄어드는 중

③ 월경 시 구역감은 남아있으나, 구토 증상 소실

(4) 70일 후 재진 (吳茱萸湯 45첩 복용 후 치료 중단 상태, 치료 시작 후 세 번째 월경)

① MIDAS : 3일

② 월경 시 편두통 증상 줄어든 상태로 유지

③ 월경 시 구토 증상 소실된 채로 유지

④ 손발 저림 소실된 상태로 유지

45일의 치료 기간 동안 MIDAS 수치는 10일에서 3일로 감소하였으며, 두통과 구역감이 남아있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다. 환자는 약을 성실히 복

용하였으며, 생활 지지도도 성실히 이행하였다. 복용 전에 비해 구토와 두통이 감소된 것에 대해 만족하였으나, 약 복용 중단 후에 상기 증상이 재발할까봐 걱정하였다. 이에 대해 편식 조절과 짜증 조절을 잘 하면 상기 증상이 심화되지 않음을 교육하였다. 환자의 전체적인 치료경과를 서사적으로 도식화하면 Figure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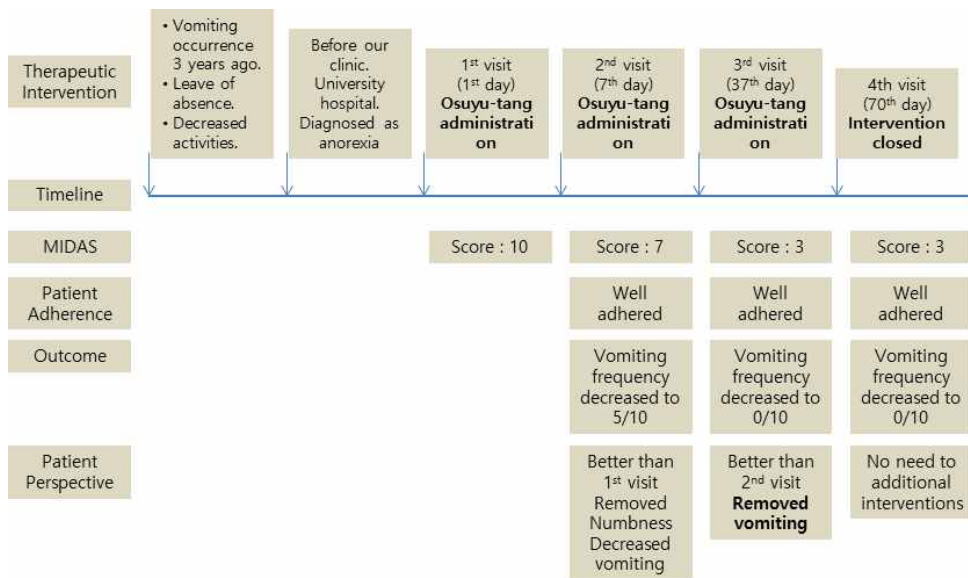


Figure 2. Timeline analysis of the first case. This figure's categories, such as Therapeutic intervention, Timeline, Disease status(MIDAS), Patient adherence, Outcome, and Patient perspective, are following the CARE guideline

증례 2

1. 환자명 : ○ ○ ○

2. 환자 기본정보

여 / 73세 / 151cm / 53kg / 기혼 / 무직(가정주부)

3. 주소증(C/C) : 밤에 자려고 누우면 다리에서 쥐가 남

4. 발병일(O/S) : 약 8년 전

5. 현병력(P/I) : 약 8년 전 남편과 아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황

에서 주소증이 발생하였으며, 상기 증상으
로 양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증상이 아직 남
아있는 상태로 내원함

6. 가족력 : 없음

7. 과거력 : 없음

8. 현재 복용중인 약물 : 하지불안증후군
과 관련된 양약 복용 중

9. 주요 임상증상

1) 食慾 : 보통. 간식 잘 안 먹음. 아침과
저녁 식사 시간은 규칙적이나 점심은 불규
칙함. 대체로 오후 1시-2시 사이에 먹음

2) 消化 : 잘 안 됨. 8년 전에 역류성 식도
염으로 고생했으며, 최근 역류성 식도염이
재발함

3) 口部 : 800mL/일 정도의 물 섭취함

4) 汗出 : 특이사항 없음

5) 大便 : 1회/1-2일. 풀어진 변을 봄. 대
변을 보기 힘들지는 않음. 보고 나서 시원하
지 않음. 미숫가루를 먹으면 변비가 생김.
과거에 설사를 자주 했음.

6) 小便 : 8-10회/일. 자기 전까지 6-7회
보며, 자다가 2-3회 봄. 소변에 힘이 없으나
조금만 힘주면 잘 나옴

7) 寒熱 : 추위도 타고 더위도 탐. 1년에
1-2회 정도 감기에 걸림

8) 頭面 : 백내장이 있음. 아들 이혼 이후
녹내장 생김

9) 呼吸 : 숨이 차지는 않음

10) 胸部 : 가슴이 조금 답답함. 8년 전 아

들이 이혼했을 때 심하게 답답했음. 가슴 두
근거림은 없음

11) 腹部 : 가스 차는 현상 없음

12) 睡眠 : 오후 11시 30분-자정에 취침하
여 5시 정도에 기상.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
할 때가 있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낮에도 잠. 집에 있을 때에는 괜찮은데, 아
들 집에 가서 몇 시간 정리하고 나면 기운이
없어 낮에도 자게 됨

13) 身體 : 걸을 때 발이 아프고, 다리가
밤에 저려 잠을 자는 게 힘들

14) 性慾 : 별무

15) 婦人 : 폐경

16) 스트레스 대응 방식 : 남편 때문에 스
트레스를 많이 받아 짜증을 내고 우는 편

10. 진단 및 평가 방법

1) 辨病診斷 및 條文의 선정(Table 4 참고)

(1) 臨床 所見 : 남편과 아들에 대한 짜증
으로 울고 싶은 마음이 드는 조건에서 주소
증이 심해지는 정황이 관찰됨

(2) 辨病 診斷 : 少陰之爲病

① 脉微細 : 피로한 조건에서 주소증이 심
해지는 경향

위 脉微細를 근거로 하여 少陰病을 진단
(Table 4.)하였다

(3) 條文 診斷 : ㉔309. 少陰病, 吐利, 手
足逆冷, 煩躁欲死者, 吳茱萸湯主之.⁹⁾

① 吐利 : 평소 역류성 식도염으로 종종
고생하였으며, 발병 시점 전후로도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함. 항상 대변은 풀어지는 편

② 手足逆冷 : 손발에 피가 통하지 않는
느낌으로 저리게 되는 것

③ 煩躁欲死: 남편과 아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짜증을 많이 내고 말을 많이 하면서 울어버리는 또는 울고 싶은 심리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

위 진단내용을 근거로 하여 少陰病의 309번 吳茱萸湯 조문임을 진단(Table 4)하였다.

2) 치료 평가 도구: K-IRLS

1) 한약 투여
吳茱萸湯을 2019년 3월7부터 4월5일까지 30일 진료기간 중 30일 분을 투약하였으며, 1일 3회, 1회 120cc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2) 생활지도
분노에 대해 공감해주었으며 특별히 지도를 하지 않음

11. 치료적 중재

Table 4. The main diagnostic points of 2nd case

Interpretation of Etymology	Expression in the provision of <i>Shanghanlun</i>	Related Patient Information
Soyinbing	少陰病	Disease developed while the activity is less at night
Reflux esophagitis Soft stools or leukorrhea	吐利	She had reflux esophagitis and soft stools
Numbness of hands and feet	手足逆冷	Leg went numb at night
Whimper	煩躁欲死	She was very annoyed at the time of her illness

12. 치료기간 및 경과

1) 기간: 2019년 3월7일-4월5일

2) 경과

(1) 초진일

① K-IRLS 30점

② 다리가 저려서 잠에 들기 힘들

(2) 14일 후 재진 (吳茱萸湯 복용 14일)

① K-IRLS 22점

② 다리 저림이 줄어들고 있음

③ 수면제 복용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3) 30일 후 재진 (吳茱萸湯 복용 30일)

① K-IRLS 9점

② 남편과 싸우고 나서 저림이 심해지지만 복용 전에 비해 통증은 많이 감소함

③ 수면제 복용 횟수도 줄어든 상태로 유지

30일의 치료 기간 동안 K-IRLS 수치는 30점에서 9점으로 감소하였으며, 남편과 싸우고 나서 저림이 심해지긴 하지만 약 복용 전에 비해 저림 및 통증은 감소하였고, 수면제 복용 횟수도 복용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환자는 약을 성실히 복용하였으나, 남편에 대한 짜증은 좀처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치료에 대해 저림뿐만이 아니

라 수면 장애도 해결된 것에 대해서 만족해 했다. 환자의 전체적인 치료경과를 서사적

으로 도식화 하면 Figure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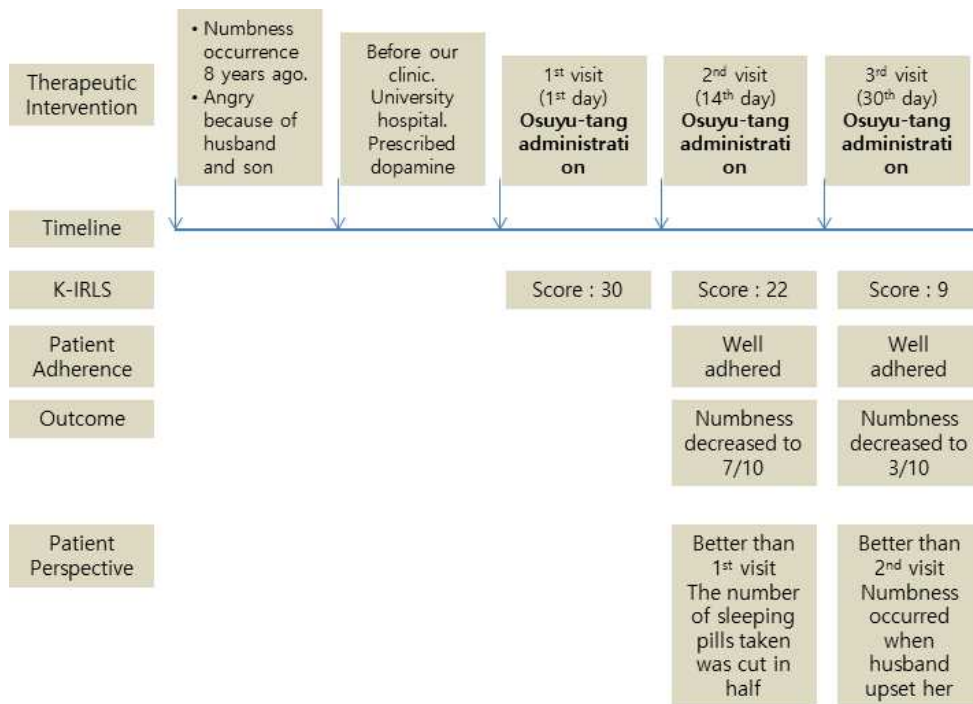


Figure 4. Timeline analysis of the second case. This figure's categories, such as Therapeutic intervention, Timeline, Disease status(K-IRLS), Patient adherence, Outcome, and Patient perspective, are following the CARE guideline

고찰

吳茱萸湯은 『傷寒論』에서 처음 등장하는 처방으로, 陽明病의 15字行 『㉔243. 食穀欲嘔者, 屬陽明也, 吳茱萸湯主之. 得湯反劇者, 屬上焦也.』 少陰病의 15字行 『㉔309. 少陰病, 吐利, 手足逆冷, 煩躁欲死者, 吳茱萸湯主之.』 厥陰病 霍亂의 14字行 『㉔378. 乾嘔, 吐涎沫, 頭痛者, 吳茱萸湯主之.』에 언급되어 있다⁹⁾. 吳茱萸湯은 전통적으로 溫中去寒劑에 속하여 溫肝暖胃,

降逆止嘔의 효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기초하여 胃寒嘔吐, 肝寒犯胃, 少陰寒水侮脾의 증후에 활용할 수 있다⁴⁾.

국내 논문 DB(전통지식포탈, OASIS, NDSL 등)에서 ‘吳茱萸湯’으로 검색하였을 때 5건이 검색되었다. 그 중 임상 증례로는 신⁵⁾의 여드름, 윤⁶⁾의 아토피 피부염, 이⁷⁾의 건선, 허⁸⁾의 혈관성 두통에 대한 증례가 보고되었다.

저자는 『傷寒論』을 기존의 外感熱病, 六經傳變 등으로 인식하지 않고 서론에서

언급한 辨病診斷體系와 어원 분석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단하였다. 변병진단체계는 환자의 병력취취 과정에서 원인이 되는 현상을 제강으로 선정한 후, 주소증의 원인이 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조문을 선택한다. 조문의 해석은 康平本 『傷寒論』 15字行이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대¹²⁾의 어원을 참고하여 이루어진다.

두 증례는 월경 중 발생하는 구토와 야간 다리 저림이라는 서로 다른 증상에도 불구하고 변병진단체계 및 어원 분석에 의거하여 少陰病의 15字行 『㉔309. 少陰病, 吐利, 手足逆冷, 煩躁欲死者, 吳茱萸湯主之.』으로 동일하게 진단되었으며, 투약 후 주소증 및 제반 증상의 호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어원을 고려한 少陰病 吳茱萸湯 조문 해석은 다음과 같다.

少陰病

小에서 분화한 글자로, 춘추시대 이후에 야 나타난 글자이다. 그전의 갑골문이나 서주 때의 금문에서는 小로 활용하여 이 둘을 구분 없이 사용했다. 小는 모래알을 상형한 글자이며, ‘작다’라는 개념을 나타낸다¹³⁾. 임상적으로는 ‘움직임이 적어지는 조건’에서 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吐利

吐는 입 속의 것을 토해 땅에다 내뱉는 것¹³⁾을 의미하며, 임상적으로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일컫는다. 利는 곡식과 칼을 의미하는 글자¹³⁾로, 곡식을 칼로 베었을 때 나오

는 수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상적으로는 ‘찔끔거리는 조건’, 생식기 분비물이 많아지거나, 대변을 더욱 무르게 보는 양상을 의미한다.

手足逆冷

逆은 廻과 𠂔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람이 거꾸로 서 있는 모습¹⁴⁾과 연관된 의미를 담고 있다. 임상적으로는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의 느낌처럼 얼굴로 혈액이 몰리거나, 체한 느낌, 손발로 혈액이 가지 않는 느낌과 유사하다. 冷은 冫과 夨으로 구성되었으며, 솜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 (Figure 5-7.)을 담고 있다¹⁴⁾. 임상적으로는 무릎을 꿇고 있을 때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 저리고 감각이 이상한 느낌을 일컫는다.

煩躁欲死

煩은 頁과 火로 구성되며, 머리에 열이 남을 뜻한다¹³⁾. 임상적으로는 얼굴에 열이 뜨는 심리 상태인 짜증을 일컫는다. 躁는 足과 皃로 구성되며, 새가 지저귀는 모습¹³⁾과 연관된 의미를 담고 있다. 임상적으로는 다리를 바쁘게 쓰면서 말을 많이 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死는 갑골문에서는 앙상한 뼈 앞에 꿇어앉아 애도하는 사람을 그렸다¹³⁾. 곡소리를 내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글자로 추정되며, 임상적으로는 칭얼거리는 모습, 찡찡대는 모습을 일컫는다.

위의 해석에 근거하여 증례 1과 증례 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ure 5. 'Ling(令)' in Bronze characters(金文)¹⁵⁾

증례 1

少陰病

환자는 휴식을 하고 집에 쉬면서부터 가끔씩 있어왔던 두통 및 구역감, 구토 증상이 심해졌다. 이 정황을 통해서 少의 조건에서 병이 심해짐을 알 수 있다.

吐利

주소증인 구토는 吐의 조건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매 번 월경이 끝날 무렵 구토가 심해지는 상황은 생식기에서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조건, 즉 利가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手足逆冷

손발이 탈 것 같은 느낌은 手足逆冷을 호소하는 것이다.

煩躁欲死

휴식을 하면서 짜증이 많아졌다.

증례 2

少陰病

특별히 무리를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도 병이 발생하는 정황은 少의 조건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6. 'Ling(令)' in Bronze characters(金文)¹⁵⁾

吐利

발병 시점 전후로 심해진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吐를 의미하며, 대변이 항상 무르게 나오는 것은 利를 의미한다.

手足逆冷

주소증인 다리 쥐림, 다리 저림은 手足逆冷에 해당된다.

煩躁欲死

남편과 아들에 대한 짜증이 많이 나고, 이것 때문에 찡찡거리는 조건에서 주소증이 심해진다.

증례 1과 증례 2의 분석을 통해 주소증이 서로 다르지만 少陰病 吳茱萸湯 조문의 현상이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각 조문의 내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문의 현상이 단순히 증상의 유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소증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증례 1은 吐利가 월경 중 구토의 핵심 원인, 증례 2는 手足逆冷이 다리 저림의 핵심 원인이 된다.

본 연구는 변병진단체계를 활용한 『傷寒論』 진단방식과 어원을 고려한 해석방식을 도입하여 증례를 보고하였다. 少陰病 吳茱萸湯 조문에 대한 규정은 기존의 『傷寒



Figure 7. 'Leng(冷)' in Seal characters(篆字)¹⁶⁾

論』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증례 1의 부수 증상인 ‘손발이 탈 것 같은 느낌’, 증례 2의 주소증인 ‘발이 저린 느낌’은 기존의 冷에 대한 해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冷의 어원으로 증상의 양상이 매우 잘 설명된다. 이는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느껴지는 저림 또는 감각 저하를 호소하는 환자가 왔을 때, 冷이 언급된 조문의 처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상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주관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치료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평가 도구가 빈약하고 평가 기간이 길어 증상의 개선 정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어원 분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학술적 근거 및 임상적 근거가 필요하다.

3) 조문의 내용과 임상 증상의 연관성을 일반화하기 위한 증례의 수가 적다.

4) 투약기간이 길지 않아 장기간의 효과 검증이 힘들며, 추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

3년 전부터 휴직 후 월경 중 발생하는 구토가 매 달 반복되는 환자와 8년 전부터 남편과 아들에 대한 짜증이 심해지면서 야간 다리 저림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傷寒論』 변병진단체계 및 어원 분석에 입각하여 少陰病으로 진단하고 309번 조문의 吳茱萸湯을 투여하여 호전된 증례를 연구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傷寒論』辨病診斷體系에 근거하여 증례 1의 구토 환자와 증례 2의 다리 저림 환자에 유의미한 치료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증례 1의 환자는 吳茱萸湯 45일 복용 후 MIDAS 점수가 10일에서 3일로 개선되었으며, 증례 2의 환자는 吳茱萸湯 30일 복용 후 K-IRLS 점수가 30점에서 9점으로 개선되었다.

2. 증례 분석을 통해서 冷이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느껴지는 저림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冷에 대한 어원 분석을 통하여 冷에 대한 임상적인 의미 및 해석을 더 구체화시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References

1. Yamada K. How di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start. Seoul publishing company science books. 2002 : 155,170-1.
2. Park KM, Choi SH. The comparative study of 『Sanghanron』 and 『hwangjenaegyong』 through historical study on 『Gangpyung Sanghanron』. J. Korean Medical Classics. 1995 ; 9 : 263-300.
3. Lee SJ, Lim JE. A diagnostic system and clinical application based on Shanghanlun six meridian patterns and provisions. Seoul : KMediACs publishing house. 2013.
4. Park SK, Kim YK, Oh MS. Herbal formula science. Yeonglimsa. 2010 : 163-4.
5. Shin JM, Hyun JY. A case report of Soeumbyeong acne vulgaris patient treated

- with Osuyu-Tang.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3 ; 5(1) : 93-100.
6. Yun SM, Im EK. A case report of atopic dermatitis treated by Osuyu-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3 ; 5(1) : 85-92.
 7. Lee SJ, Seo HA, Lee SI. A case report of psoriasis treated by Osuyu-Tang based on Shanghanlun. Journal of herbal formula science. 2016 ; 24(1) : 53-61.
 8. Hur HS, Jung SY, Shim WS, Kim GS, Kim KM, Kim YK. A case of vascular headache treated with Osuyu-Tang. J Int Korean Med. 2015 : 287-91.
 9. Lee SI, Cho HR. Comparison of Shanghanlun. Seoul : KMediACs publishing house. 2015 : 23,32,37,209,214.
 10. Lee HS, Chung CS, Song HJ, Park H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IDAS questionnaire for Korean migraine sufferers. J Korean Neurol Assoc. 2000 ; 18(3) : 287-91.
 11. Yang JG, Kim DH, Lee JH, Park KH, Jung KY, Shin WC, Cho YW.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s of the international restless legs scale and the restless legs syndrome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J Korean Neurol Assoc. 2010 ; 28(4) : 263-69.
 12. Ootsuka K. Shanghanlun explanation. Euibang publishing company. 2004 : 21-55.
 13. Ha YS. Hanjaewonsajeon. 3Publication. 2014 : 209,273,324,363,585,692.
 14. Liao WH. The tree of chinese character. Munhakhdongne publication. 2015 : 87,88,237.
 15. Chinese etymology. 令. retrieved 2019 Dec 18. Available
URL : <https://hanziyuan.net/#home>